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3			
----	--	------	--	--	--	--	--	---	--	--	--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2. (물음) 수업을 들은 학생이 보인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리를 아치형으로 만들면 위에서 누르는 힘에 보다 잘 견딜 수 있겠네.
  - ② 둘레의 길이가 같은 원, 삼각형, 사각형 중 면적이 가장 큰 것은 원이야.
  - ③ 뿌리는 모기약 바닥이 오목하게 안으로 들어간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군.
  - ④ 활처럼 둥근 모양의 갈비뼈는 외부에서 내장 기관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켜 주겠군.
  - ⑤ 원기둥 모양의 음료 용기는 과학적 원리를 고려한 것으로, 경제성과는 관련이 없겠네.

3. (물음) 학생의 과제물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자인과 성능의 관계
- ② 상품의 공간 배치 기법
- ③ 상품 속에 숨은 마케팅 전략
- ④ 매체에 따른 광고 차별화 전략
- ⑤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품명 짓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토론의 흐름으로 볼 때, 박 과장이 이전에 말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있다.
- ② 고속도로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이를 수익 사업으로 삼을 수 없다.
- ③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면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 ④ 고속도로에 통행량이 집중되는 명절에는 일부 구간의 진입을 통제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다.
- 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통행료를 면제하면 오히려 통행량이 늘어 교통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5. (물음) 남자의 말하기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 ② 전문 지식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반론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⑤ 통계 수치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학급’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사물놀이는 팽과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민속 타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이다. 팽과리와 징은 금속악기, 장구와 북은 가죽악기인데, 그 소재가 다르므로 이들의 음색은 많이 다르다. 각각의 음색을 지닌 악기들이 고유의 소리를 내면서 서로 어우러져 신명을 창출하는 것이 사물놀이이다.

- ① 원칙을 세우기 위해 강력한 규율이 지켜져야 한다.
- ② 배려와 관용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④ 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서로의 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7. 개요의 초고를 작성하고 새로 글감을 접하였다. 글감을 활용하여 개요를 수정·보완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 요>	<글 감>
<p>주제 : 상품 포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p> <p><b>I. 서론</b></p> <p><b>II. 본론</b></p> <p>1. 현황</p> <p>가. 과대 포장</p> <p>나. 2차 포장*</p> <p>2. 문제점</p> <p>가. 자원 낭비와 제품 가격 상승</p> <p>나. 환경오염 심화</p> <p>3. 개선 방안</p> <p>가. 불필요한 포장 자제</p> <p>나. 환경 친화적 포장재 사용</p> <p><b>III. 결론</b></p> <p><small>* 2차 포장 :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묶음 판매 상품을 포장하는 것</small></p>	<p>ㄱ. 2차 포장을 없앤 날개 상품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그린 마일리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p> <p>ㄴ.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며 재활용도 거의 불가능한 PVC가 완구류의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p> <p>ㄷ. 과대 포장을 단속하는 전담 공무원이 없어서 적극 단속이 안 되고 있다.</p> <p>ㄹ. 2차 포장재의 쓰레기가 한 매장에서 하루 최대 240kg이 넘게 배출되고 있다.</p> <p>ㅁ. 과자 26개 제품 중, 19개 제품에서 실질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로 조사되었다.</p>

- ① ‘I’에 ㄹ을 제시하여 관련 있는 화제로 글을 시작한다.
- ② ‘II-1-가’에 ㄹ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실태를 보여준다.
- ③ ‘II-2’의 하위 항목에 ㄷ을 이용하여 ‘단속의 어려움’을 추가한다.
- ④ ‘II-2-나’에 ㄴ을 제시하여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 ⑤ ‘II-3-가’에 해당하는 모범 사례로 ㄱ을 제시한다.

8. 다음은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대책’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결합하여 해석하고 주제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
ㄱ. 매년 배출에 따른 오존주의보 발령	2회	52회	84회
ㄴ. 황사주의보 발령	4회	6회	12회
ㄷ. 새집증후군 관련 민원 및 소송 건수	3회	12회	52회
ㄹ. 아동의 전체 질환 중 환경성 질환 비율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	45.2%	58.9%	63.2%

자료	해석	주제
① ㄱ+ㄴ ⇨	오존으로 인한 피해보다 황사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ㄱ+ㄷ ⇨	대기오염과 실내공기오염이 증가한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킨 주택 공급 업체에 대해 불매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③ ㄱ+ㄹ ⇨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와 아동의 환경성 질환 비율이 증가한다.	공해 유발 주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④ ㄴ+ㄹ ⇨	중국과의 무역에 따라 환경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어난다.	황사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⑤ ㄷ+ㄹ ⇨	주거 환경의 변화가 환경성 질환과 유전성 질환의 상관관계를 높인다.	환경성 질환에 대비하여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9. ‘오늘의 속담’ 게시판에 자신이 아는 속담을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보 기>
- 속담을 통해 얻은 삶의 가치를 드러낼 것
  - 역설적 의미를 살려 표현할 것

- ①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  
→ 고생 끝에 행복이 오듯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나지.
- ② 낙숫물이 댕들을 뚫는다.  
→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어. 작은 것이 결국 큰 것인 셈이지.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최선을 다했는데 시기가 잘 맞지 않아 일이 잘 안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버리는 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 ④ 공든 탑이 무너지랴.  
→ 모래로 쌓은 탑은 한 줄기 바람에도 쓰러져 버리지만, 정성을 다해 공을 들인 일은 쉽게 실패하지 않는 법이지.
- 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비바람과 세찬 파도에 울퉁불퉁한 돌들이 다듬어지듯,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람도 변해. 시간은 흘러가 버리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도 있지.

10. <보기>는 ‘시간 관리’에 대한 글이다. 고쳐 쓰려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며, 마음이 흐려져 ㉠안절부절못하게 된다. 이러다 보면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일을 하게 되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된다. 또한 잦은 실수를 범하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붓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해야 할 일들은 더욱 ㉢쌓여지게 되고, 스트레스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 간다.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 보자.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집중력이 개선되고 심리적 여유도 얻게 될 것이다. 스스로 시간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시간의 주인임을 인식하며 풍요롭게 시간을 누리려 할 때, ㉤시간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 ① ㉠은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안절부절못하게’로 고친다.
- ② ㉡은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쏟아 붓지’로 바꾼다.
- ③ ㉢은 피동 표현이 잘못되었으므로 ‘쌓이게’로 고친다.
- ④ ㉣은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⑤ ㉤은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시간으로부터’로 바꾼다.

11. <보기>를 통해 ‘접사’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군- : 군말, 군살, 군손질, 군침
- 헛- : 헛고생, 헛걸음, 헛돌다, 헛디디다
- -거리다 : 꿈틀거리다, 머뭇거리다, 글썽거리다
- -롭다 : 평화롭다, 자유롭다, 새롭다

- ① 접미사를 붙여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 수 있다.
- ② 접두사 중에는 명사와 동사에 다 붙을 수 있는 것도 있다.
- ③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어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한다.
- ④ 접두사는 자립성을 갖는 형태소에, 접미사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에 붙는다.
- ⑤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12. <보기>에 따를 때, 밑줄 친 두 단어가 본말과 준말의 관계가 아닌 것은?

—<보 기>—

본말은 본디 소리마디의 말이고, 준말은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말이다. 두 말을 바꾸어 사용해도 의미가 변하지 않을 때, 본말과 준말의 관계가 성립한다.

- ① 손이 닿지 않는데, 그것 좀(조금) 주시겠어요?
- ② 맘(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두 사내(사나이)가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 ④ 너희들끼리 쌈(싸움)을 하다가 다친 모양이구나.
- ⑤ 두 소녀는 얘기(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받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內地人)\* 주재소장(駐在所長)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들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뽕뽕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 백석, 「팔원(八院)」 -

- \* 내지인 : 식민지에서 본국 사람을 일컫는 말
- \* 내임을 내다 : 배웅을 하다, 차비를 내다

(나)

먼 길 가는 모양이다  
 동네 어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어떤 부부가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  
 조금은 떨어져 선 두 사람은  
 목도리가 같아서인지 한눈에 부부 같다  
 지아버가 한 손을 올린 채 앞으로 나와 있고  
 지어미는 조금 뒤에서 웃고 있다  
 시골버스의 유일한 승객인 나는  
 그 부부를 발견하고 내심 반가웠지만  
 운전기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치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은 늘 거기 서 있으면서도  
 한번도 버스를 탄 적이 없다는 듯이  
 아아, 버스로는 이를 수 없는 먼 길 가는 모양이다  
 그 부부는 이미 오랜 길을 걸어 저기 당도했을 것이고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갈하게 풀을 먹인 광목 목도리는  
 누가 돌려주고 간 것일까  
 목도리에 땀을 닦고 있을 그들을 뒤돌아보니  
 미룩 한 쌍이 석양 속으로 사라진다  
 두 개의 점, 흰 광목빛

- 나희덕, 「흰 광목빛」 -

(다)

늦겨울 한강에 얼음이 뽕뽕 어니	季冬江漢氷始壯
사람들 우글우글 강가로 나왔네	千人萬人出江上
팡팡 도끼로 얼음을 찍어내니	丁丁斧斤亂相鑿
울리는 소리가 용궁까지 들리겠네	隱隱下侵馮夷國
찍어 낸 얼음이 설산처럼 쌓이니	鑿出層氷似雪山
싸늘한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네	積陰凜凜逼人寒
낮이면 날마다 석빙고로 저 나르고	朝朝背負入凌陰
밤이면 밤마다 얼음을 파 들어가네	夜夜椎鑿集江心
해 짧은 겨울에 밤늦도록 일을 하니	晝短夜長夜未休
노동요 노랫소리 모래톱에 이어지네	勞歌相應在中洲
짧은 옷 맨발은 얼음 위에 얼어붙고	短衣至跣足無屣
매서운 강바람에 언 손가락 떨어지려네	江上嚴風欲墮指
고대광실 오뉴월 무더위 폭폭 찢 때	高堂六月盛炎蒸
여인의 하얀 손이 맑은 얼음 내어오네	美人素手傳淸氷
그 얼음 깨, 자리에 두루 돌리니	鸞刀擊碎四座徧
멀건 대낮에 하얀 안개가 피어나네	空裏白日流素靄
왁자지껄 이 양반들 더위를 모르고 사니	滿堂歡樂不知暑
얼음 뜨는 그 고생을 그 누가 알아주리	誰言鑿氷此勞苦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君不見  
 [B]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뒹구는 백성들이   道傍暍死民  
 「대개 강 위에서 얼음 뜨던 자들인 것을   多是江中鑿氷人

- 김창협, 「작빙행(鑿氷行)」 -

13.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체를 사용하여 서술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시상을 반전시키는 각성의 매개체가 나타나 있다.
- ④ 묘사적 진술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4. &lt;보기&gt;는 (가)와 (나)의 감상을 위한 수업 장면이다. 학생들의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lt;보 기&gt;

선생님 : 시인은 가상의 대리인인 시적 화자를 통해 시적 진실을 말합니다. 이때 시적 진실은 화자의 내면 계시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고, 화자가 바라보는 외적인 대상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가)와 (나)는 주로 외적인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를 중심으로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합니다.

대상의 발견 (A)	⇒	대상에 대한 상상 (B)	⇒	의미 추출 (C)
---------------	---	------------------	---	--------------

- ① (A) : (가), (나) 모두 차를 타고 가다가 발견한 대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② (B) : (가)의 화자는 새 저고리를 입었지만 손등이 다 갈라터진 계집아이를 보며 고단한 아이의 삶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 ③ (B) : (나)의 화자는 흰 광목 목도리를 두른 부부를 보며 그들이 함께 살아낸 삶의 여정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 ④ (C) : (가)는 계집아이의 삶으로부터 환기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⑤ (C) : (나)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 삶이 끊임없는 방향과 고뇌의 연속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황을 과장하여 비판적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B]는 구체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③ [A]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B]에는 연민의 정서가 담겨 있다.
- ④ [A]와 [B] 모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 ⑤ [A]와 [B] 모두,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16. &lt;보기&gt;의 조건에 따라 (가)를 고쳐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lt;보 기&gt;

- (가)의 화자가 지닌 생각과 정서를 드러낼 것
- (나)의 ㉠부분과 유사한 통사 구조를 사용할 것
- 추상적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것

- ① 창밖으로 보이는 주재소장 같은 어른은 누구이길래 내임을 내는 걸까  
자성으로 간다는 계집아이를 바라보니 추운 아침에 손이 뽕뽕 얼어 찬물에 걸레를 빠는 모습이 떠오른다
- ② 몇 해고 주재소장 집에서 아이보개를 하고 밥을 짓고 하면서 손잔등이 받고랑처럼 터진 계집아이를 생각하니 서러움이 가슴 속으로 가득 차 오른다 삼촌이 산다는 묘향산, 백오십 리
- ③ 손잔등이 받고랑처럼 몹시도 터진 계집아이는 어디로 가는 걸까 자성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걸까 흐느끼며 우는 아이의 어깨가 가냘프게 떨고 있다, 차디찬 아침
- ④ 몹시도 터지고 갈라진 손잔등은 무엇 때문일까 새 저고리에 눈물방울을 적시며 서 있는 계집아이를 보는데 차가운 시간이 버스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흐르는 눈물, 초록 저고리의 손잔등
- ⑤ 삼백오십 리나 떨어진 자성은 왜 가는 것일까 새하얗게 얼은 유리창 밖의 주재소장 같은 어른을 보는데 버스에 탄 채 눈물 씻는 계집아이는 손잔등이 터져 있다 추운 아침, 나이 어린 계집아이

17. <보기>는 (나)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빈 칸에 들어갈 시어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화자는 길 위에서 삶의 진정성을 발견하고 있다. 그저 스쳐 버릴 일상적인 지나침 속에서 화자는 자신의 눈을 붙들어 매는 이미지를 발견한다. 누군가가 길을 나선 이들을 위해 마련해준 ‘정갈하게 풀을 먹인 목도리’가 그것이다. 비단도 모피도 아닌 소박한 광목 목도리의 새하얀 빛. 순수하면서 정갈함을 느끼게 하는 부부의 모습에서 화자는 \_\_\_\_\_을(를) 발견한다. 보내는 이의 마음결과 받는 이의 마음결이 느껴지는 목도리가 화자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남기는 것이다. 버스는 이미 이들을 지나쳤지만 화자에게 노부부는 ‘두 개의 점, 흰 광목빛’으로 기억된다. 있는 그대로의 꾸미지 않은 모습, 지나가 버리는 버스를 또 그저 보내는 모습에서 화자는 삶의 가치와 여유로움을 생각하는 것이다.

- ① 먼 길                      ② 느티나무                      ③ 나무 그늘
- ④ 미륵                        ⑤ 석양

18. (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만들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과장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청각이미지를 이용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⑤ 반어를 사용하여 풍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를 한 지 10여 분, 휴대전화의 열기 때문에 귀가 뜨겁다. 전자제품에서 나는 열은 대부분 핵심 부품인 반도체칩에서 발생한다. 반도체칩에서 발생하는 열은 이미 100W/cm<sup>2</sup>를 넘어 섰다고 한다. 손톱만한 칩이 손바닥만한 100W 전구보다 더 뜨겁다는 얘기이다. 2010년에는 손톱만한 칩에서 1000W/cm<sup>2</sup>의 열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반도체칩과 열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반도체칩은 트랜지스터가 수없이 많이 집적된 회로다. 트랜지스터는 3개의 전극(소스, 게이트, 드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정한 조건하에서 게이트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를 흘려주거나 끊어줌으로써, 트랜지스터가 논리적 연산을 수행한다.

반도체칩 기술은 소자 크기를 축소해 집적도\*를 높이며 발전해왔다. 칩 안에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적하기 위해 트랜지스터 크기를 작게 하면, 전자의 이동 통로가 짧아져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연산 속도도 빨라진다. 하지만 반도체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늘면 늘수록 발생하는 열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이다. 열이 발생하면 트랜지스터의 저항이 커져 전류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전기신호가 지연돼 회로의 정확도가 떨어져 오작동을 일으킨다. 반도체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반도체칩을 설계하는 과학자들의 철학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열을 줄이는 설계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 다음으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기 위해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트랜지스터에서 열이 발생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 조절된다. ㉡게이트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향하던 전자들을 잡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셈이다. 수문장의 검문을 피해 게이트를 통과한 전자들은 트랜지스터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주범이었다. 그런데 소스와 드레인 전극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자 게이트의 검문을 받기도 전에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빠져버리는 전자가 많아졌다. 그만큼 누설되는 전류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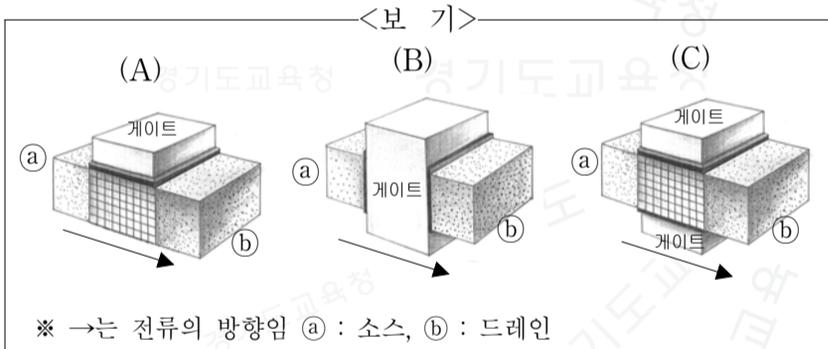
일본의 히사모토 박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실리콘 통로 위아래에 게이트를 2중으로 배치하는 ‘이중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누설되는 전류를 잡는 수문장을 두 배로 늘린 셈이다. 나아가 미국의 콜린즈 교수는 게이트 전극이 전류통로 전체면을 감싸는 구조인 ‘전면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수문장이 통로 전체를 지키고 있어서, 누설 전류를 막아 트랜지스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 집적도 : 단위면적당 트랜지스터의 개수

19. 위 글의 서술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흐름	서술 전략
도입	·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 ①
반도체칩은 무엇인가?	· 대상의 개념과 기능을 간략히 설명한다. .... ②
반도체칩 기술의 핵심과 과제	· 대상의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단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③
반도체칩 설계에 일고 있는 변화	· 비유적 수법으로 대상의 기능을 부각시킨다. .... ④ · 최근의 발전 방향을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⑤

20. <보기>는 여러 종류의 트랜지스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 (C)에 비해 열이 많이 발생한다.
- ② (A)는 (B)에 비해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 ③ (A)→(C)→(B)의 순서로 트랜지스터가 개발되었다.
- ④ (B)가 (A), (C)에 비해 누설 전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⑤ (A)~(C)는 a에서 b로 흐르는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연산을 수행한다.

2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작동을 최소화하려고
- ② 반도체칩의 집적도를 높이려고
- ③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 ④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려고
- ⑤ 반도체 소자의 크기를 작게 하려고

22. ㉡의 역할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가스관의 중간 밸브                      ② 공기 정화기의 필터
- ③ 천장에 있는 형광등                      ④ 창에 설치된 방충망
- ⑤ 벽에 설치된 콘센트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동화 속 같던 온 세상이 한 순간에 흰빛 절망감의 구렁텅이로 변하던 장식조네집 마당에서 어쩔 줄 모르던 소년의 모습이 환하게 떠올랐다.

나는 깨진 단지를 눈으로 찬찬히 확인하는 순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단지의 임자가 옥쟁이 함경도 할머니임에 틀림없음에랴! 이 배락맞아 돼질 놈의 아새끼 봤나, 하는 욕설이 귀에 쟁쟁해지자 등뒤에서 올라온 따뜻한 열기가 목덜미와 정수리끼를 휩싸며 치솟아올라 추운 줄도 몰랐다.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이 눈앞에서 사라져줄 리는 만무했다.

집 안팎에서 귀청이 떨어져라 피부어질 지청구와 매타작을 감수하는 게 상수인 듯싶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첫길이라고 일부러 발끝에 힘을 주어 제거당고 가느라 우리집 앞에서 변소 앞까지 뚜렷이 파인 눈 위의 내 발자국은 요즘 말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봉쇄하고 있는 터였다. 이미 아홉 가구의 어느 방 안에서인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라도 한 양 두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기로 맘먹었다. 우랑바리나바롱나르비똥다라까따라마까뿌라나.....

손오공이 부리는 조화를 기대하며 입 속으로 주문을 반복해서 외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꺾 돌려 깨진 단지를 내려보았다.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내 입가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깨진 단지는 그 모양 그대로였지만 어떤 기발한 생각이 별똥별처럼 머리 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눈사람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쭉 벌렸다. 일단 이 아침만큼은 별일 없이 맞이할 수 있겠지.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서둘러 주위의 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마침 찰기가 좋은 눈이어서 손이 한번 닿을 때마다 흙알갱이가 알알이 박인 눈덩이들이 붙어 올라왔다. 나는 우선 향아리 주변에 눈사람의 아랫부분을 뭉쳐놓았다. 그리고는 조금 작은 눈덩이를 서둘러 올려놓았다. 그렇게 해서 깨진 단지를 감쪽같이 눈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중략)

그 길로 처음 볼 땐 한복집인 줄 잘못 알았던 길음천변의 음산한 텍사스 거리를 겁없이 걸어다녔다. 그런 용기를 준 것은 허기진 배와 눈사람 속에 묻힌 짠지 단지다. 텍사스 거리의 한쪽 끝에 있는 튀김집 거리를 지날 때는 싸구려 기름 냄새 때문에 뱃속의 내장들이 요동을 치다못해 밖으로 꾸역꾸역 튀어나올 듯했다. 하지만 설에도 집에 가지 못한 손톱이 긴 매춘부들이 건네주는 오징어 튀김의 유혹에 굴복하진 않았다. 나중에 떨어질 때와 꾸지람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은 다 더럽혀져도 자존심만큼은 더럽힐 수 없었다.

그리곤 어느덧 해질녘..... 이미 비밀이 다 까발려졌을 아홉 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게 일제히 안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물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갔다 했고, 문쪽에 기대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돗가에 물려나와 쌀을 일며 화기에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수돗가에서 시래기

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았다.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다.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두었던 변소통 쪽을 돌아다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물론 흉측한 물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짚이 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A]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이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푸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었다.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러야 직성이 풀릴 듯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쯤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없이 울었다.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뭘 잘했다고 소리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초부터 에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너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문을 생각은 어찌 했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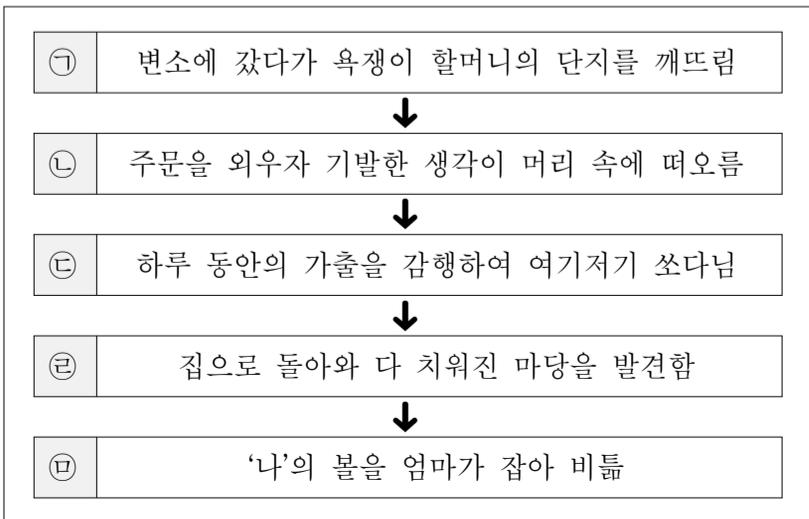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니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주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 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리고는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컸다.

-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외양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사건의 반전을 통해 인물들이 화해에 도달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 다음은 위 글의 사건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24번과 2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4. ㉠~㉤의 각 상황에 따른 ‘나’의 심리 상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욕쟁이 할머니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함
- ② ㉡ : 일단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함
- ③ ㉢ : 자신에게 닥쳐올 고통의 시간을 늦추고자 함
- ④ ㉣ : 평소와 다른 사람들을 보며 배반감을 느낌
- ⑤ ㉤ : 자신을 비난하는 엄마로 인해 위축됨

25.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할 때, ㉠~㉤에 대한 제작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욕쟁이 할머니가 욕설을 퍼붓는 상상 장면을 삽입화면으로 처리한다.
- ② ㉡ : 간절하게 주문을 외우는 ‘나’의 모습을 클로즈업한다.
- ③ ㉢ : ‘나’가 이동한 공간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긴박한 배경 음악을 사용한다.
- ④ ㉣ : 눈사람 속에 깨진 단지를 숨기던 장면을 오버랩한다.
- ⑤ ㉤ : 엄마에게 꼬집히는 장면 직전의 ‘나’가 한 생각은 내레이션으로 처리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성장 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 과정을 주로 담고 있는 작품들을 지칭한다.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 혹은 소년의 갈등이 중심을 이루며, 그가 자아의 미숙함을 딛고 일어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치와 세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 깨달음의 과정을 문화 인류학자나 신화 비평가들은 ‘통과 제의’, ‘통과 의례’ 등의 용어로 표현한다.

- ① 깨진 단지와 관련된 사건이 ‘나’에게는 ‘통과 의례’였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가 가진 자아의 미숙함은 ‘나’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군.
- ③ ‘나’는 혼돈과 불안의 과정을 거쳐 긍정적인 자아 의식을 획득했던 것이군.
- ④ ‘나’의 눈물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겠군.
- ⑤ ‘나’의 내면적 갈등은 생각하는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의 괴리감에서 오는 것이군.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차용(借用)은 창작을 중시하는 예술 세계에서, 과거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다. 개인의 독창성이 담긴 원작만이 진품이고, 이를 차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거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현대 미술에서는 다양한 양태의 차용이 성행한다. 피카소의 「시녀들」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뒤샹의 「L.H.O.O.Q」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차용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적으로 ‘허용이 되는 차용’과 ‘허용이 되지 않는 차용’을 구분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위조와 표절은 ‘허용이 되지 않는 차용’, 패러디와 패스티시는 ‘허용이 되는 차용’으로 구분된다.

위조는 작품 제작의 내력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필수적이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는 행위로, 독창성이 중시되는 창작 세계에서 금기시되는 행위이다. 위조와 표절 모두, 속이려는 의도에 있어서는 공통되는데, 위조는 원작자의 권위에 기생하여 자신을 은폐하는 것이고, 표절은 표절자 스스로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 원작을 은폐하는 것이다.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풍자를 목적으로 한다. 원작을 모방하지만 원작으로부터 원작 이상의 의미를 도출시키는 유머와 비평이 있는 예술적 작업이다. 따라서 패러디는 작품의 고유성보다는 원작을 인용하여 그것을 비판하거나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린다 허천은 텍스트에 대한 ‘구조적 덧붙이기’에 의해 원작에 대한 비평적 거리가 발생할 때 패러디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패러디가 요구하는 비평적 거리는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원작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과 독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패스티시는 패러디와 달리 비평이나 풍자의 의도 없이 기존의 작품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의 발달로 원작의 진품성, 희소성 관념이 해체되면서 원작의 형식적 구성 요소나 기법을 그대로 전용하는 패스티시가 등장한다. 이같은 차용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만 있을 뿐 비평성이 전혀 없다. 패스티시는 말하자면 “오리지널한 텍스트는 없다.”, “스타일상의 개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표절에 함축된 부정적 의미를 오히려 해체시킨다.”라는 것이다. 이 경우 패스티시는 원작의 가치를 해체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독창적일 수 있다.

앞으로 미술에서 차용은 더욱 성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철학적·미학적·비평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이는 필경 문화와 예술과 삶의 맥락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시험대로 우리를 수시로 호출할 것이다.

27. 위 글을 토대로 ㉠에 대해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였다.
- ② 위조와 표절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
- ③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높였다.
- ④ 문화와 삶을 바라보는 통일된 관점을 제공하였다.
- ⑤ 모방과 재창조를 통해 예술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28. <보기>와 위 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패러디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유형은 ‘모방적 패러디’로 원작에 대한 존경과 원작이 지닌 권위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 제2유형은 ‘비판적 패러디’로 원작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작함으로써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는 패러디이다. 제3유형은 ‘혼성모방적 패러디’로 원작을 단순하게 모방하거나 인용한다. 이 경우 원작은 권위와 규범을 지닌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 ① 위 글의 ‘위조’와 <보기>의 제1유형은 원작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② 위 글의 ‘표절’과 <보기>의 제2유형은 원작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③ 위 글의 ‘패러디’와 <보기>의 제2유형은 원작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④ 위 글의 ‘패스티시’와 <보기>의 제3유형은 원작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⑤ 위 글의 ‘패스티시’와 <보기>의 제3유형은 원작의 권위와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9.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그림을 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고야, 「발코니의 마야들」

(나)



마네, 「발코니」

(다)



마그리트, 「마네의 발코니」

(라)



영화 포스터

※ (나)는 (가)를, (다)는 (가)와 (나)를, (라)는 (나)를 각각 차용하였음

- ① 예술의 독창성을 강조하던 시대에는 (가)만을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했을 거야.
- ② (나)는 화가의 의도보다는 (가)의 고유성과 진품성을 더욱 중요하게 부각시켰군.
- ③ (다)가 (나)를 패러디했다면, 화가는 (나)가 가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군.
- ④ (다)는 (가), (나)에 ‘구조적 덧붙이기’를 하여 본래의 맥락과 다른 의미를 생산해 내고 있어.
- ⑤ 스타일상의 개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영화 포스터를 제작했다면, (라)는 ‘패스티시’에 해당하겠군.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그 구조로 볼 때, 단일 명제로 구성된 단문(홀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명제들이 결합된 복합문(겹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우리가 단일 명제로 된 문장들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명제들의 계층적 결합 관계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비경제적인 일이 된다. 또한, 여러 문장들이 내포한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명제들을 결합하는 방식에는 접속에 의한 결합과 내포에 의한 결합의 두 가지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접속에 의한 결합 방식은 두 개 이상의 명제들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데, 다음 예문은 접속에 의하여 두 개의 명제를 결합한 문장이다.

철수는 과자를 좋아하지만 영희는 사과를 좋아한다.

접속에 의한 결합에서는 결합되는 명제들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내포에 의한 결합에서는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에 종속되거나 다른 명제의 일부가 된다. 내포에 의한 결합 방식에는 보문에 의한 내포와 관계절에 의한 내포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보문에 의한 내포는 어떤 명제에서 비어 있는 요소, 즉 '무엇'이나 '어떤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 다른 명제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철수는 무엇을 기다린다. (무엇 = 눈이 내리다)

→ 철수는 눈이 내리기를 기다린다.

관계절에 의한 내포에서는 어느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의 한 요소를 한정하거나 수식하게 되는데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사과는 빨갭다)

→ 철수가 빨간 사과를 먹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명제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응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문장을 응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에는 생략과 대명사화, 대동사화 등이 있다. 생략은 한 문장 안에서 어떤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철수는 사과를 먹고, 철수는 물을 마셨다.

→ 철수는 사과를 먹고, 물을 마셨다.

대명사화는 한 문장 안에서 복잡한 요소 대신에 대명사와 같은 단일한 요소를 사용하는 현상인데 대동사화도 이와 비슷하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용감한 학생이 어린이를 구해 주었고, 용감한 학생은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 용감한 학생이 어린이를 구해 주었고, 그는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철수는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고, 영희도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다.

→ 철수는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고, 영희도 그랬다.

30. 위 글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의 결합 방식

· 접속  ... ①

· 내포  ... ②

○ 문장 성분의 응축 방식

· 생략  ... ③

· 대명사화  ... ④

· 대동사화  ... ⑤

31. <보기>를 ㉠에 따라 나열한 것 중, 옳은 것은? [3점]

— <보 기> —

- ㄱ. 토끼는 앞발이 짧다.
- 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 ㄷ. 철수는 영희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 주었다.

접속에 의한 결합    보문에 의한 내포    관계절에 의한 내포

①	ㄱ	ㄴ	ㄷ
②	ㄴ	ㄱ	ㄷ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32. <보기>의 ㉠~㉡를 ㉢에 따라 고친 문장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준서는 걸어서 도서관에 갔다. 민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갔다. ㉡ 준서가 도서관 앞에서 민서를 만났다. 민서가 도서관 앞에서 준서를 만났다. ㉢ 준서가 민서에게 반갑다고 인사했다. 민서도 준서에게 반갑다고 인사했다. ㉣ 준서는 도서관 회원 카드가 있다. 민서가 준서를 앞세우고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 민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준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 ① ㉠ : 준서는 걸어서, 민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갔다.
- ② ㉡ : 준서와 민서가 도서관 앞에서 만났다.
- ③ ㉢ : 준서가 민서에게 반갑다고 인사했고, 민서도 준서에게 그랬다.
- ④ ㉣ : 민서가 도서관 회원 카드가 있는 준서를 앞세우고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 ⑤ ㉤ : 민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준서도 그녀에게 그랬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평국 왕비는 ㉠성의를 보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병세가 점점 더해갔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A] “십여 세 어린 아이가 이상한 도사의 말을 듣고 어미를 위하여 만리창과에 어디로 정처없이 갔는고? 망망창해의 파도는 매우 세차게 일고 구름 걸린 산봉우리는 첩첩한데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올꼬? 한번 떠난 후로 생사를 알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 하겠는가? 이제 다시 못 보고 죽으면 어찌 눈을 감을소냐?”

하시며 슬퍼하셨다.

이때 항의가 마음속으로 헤아리기를 ‘부왕과 어마마마께서 성의를 본디 사랑하시거늘 만일 약을 얻어와 환후가 회복된다면 성의를 더욱 사랑하실 것이고, ㉡온 나라에 그 아름다운 이름이 진동할 것이다. 그리되면 ㉢내 어찌 왕위를 바라겠는가’ 하고 이에 왕과 모후께 말하길,

[B] “서천에 간 지 이제 반년이 다 되도록 ㉣성의를 소식을 연하오니 소자가 길 중간에 가서 성의의 소식을 알아보우고 혹시 높은 파도에 불행한 일이 있었으면 소자가 서천에 가서 약을 구해 오리이다.”

하며 하직을 아뢰고 배를 준비해서 사공과 무예가 있는 사람으로 십여 명을 데리고 서천으로 향하였다.

배를 출발한 지 삼일 만에 풍파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가 겨우 해변에 닿아 배를 머무르고 밤을 지낼 때, 문득 서쪽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빠르게 오고 있거늘 항의가 의심하여 크게 외쳐 말하길,

“앞에 오는 저 배가 안평국의 대군이 댔던 배가 아닌가?” 하니 성의 문득 그 외쳐대는 소리를 듣고 기뻐서 배를 대고 보니 이는 곧 세자 항의라. 슬프다! 항의의 불순한 음모를 성의가 어찌 알리오. 슬프고 불쌍하다!

이때 항의가 흥계를 꾸짖는지라. 성의를 보고 일러 말하길, [C] “아우가 멀고 먼 물길을 홀로 간 것이 위태로워서 부왕의 명을 받자와 도중에 이렇게 널 맞이하거니와 일영주를 구해 왔는지 모르겠구나.”

성의는 그 형의 나쁜 마음을 모르고 일영주를 건네주며, 어마마마의 병세를 물으니 항의가 약을 받고 갑자기 말하길,

“아우가 떠난 후로 어마마마의 병세가 호전되어 지금 네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노라.”

성의가 말하길 “병세가 좋아지셨더라도 이 약을 쓰면 더욱 상쾌해지실 것입니다.”

하는데, 항의 문득 배 위에 높이 앉으며 큰소리로 꾸짖으며 말하길, “네가 거짓으로 서천에 가 일영주를 얻어오겠다고 병든 어마마마를 버리고 불도에 빠져서 이제야 돌아오니 이는 천하에 있을 수 없는 불효이나라. 이제 어마마마께서 너를 보면 병세가 더욱 나빠지실 것이니 너희들은 빨리 물에 빠져 부왕의 명을 순순히 받들라.”

성의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말없이 앉아 있다가 하늘을 우리러 탄식하며 말하길,

“㉤소자 천신만고 끝에 약을 얻어 온 것이 어마마마를 위함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죄가 없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니 이

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통곡하며 말하길, “이 몸은 이 물에 빠져 죽어도 조금도 서럽지 않습니다. 다만 병중에 계신 어마마마의 얼굴을 다시는 뵈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으며 천추의 무궁한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니 어찌 아니 가련하리요. 슬프도다. 하늘과 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하고 크게 울어대니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풀과 나무들도 모두 슬퍼하는 듯하였다.

(중략)

이때 항의가 무사에게 눈짓하여 성의를 죽이라 하니 무사 중에 한 명이 나타나 말하기를,

“세자께서 왕명을 칭하시나 어찌 동기 간에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군은 지극한 효자이시니 세자께서 어찌 이리 인정이 야박하십니까?”

하고 칼을 들어 모든 무사들을 물리치니 이 사람의 이름은 태연이었다.

항의가 무척 화가 나 성의에게 달려들어 두 눈을 찌르니, 성의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 이어서 깨어진 배 조각에 의지하게 하여 아무도 알 수 없는 방향의 바다로 정처 없이 흘러보내니 어찌 불쌍하다 말하지 않겠는가?

- 작자 미상, 「적성의전」 -

33. [A]를 한자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성의의 생사를 알 길이 없어 왕비는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군.
- ② 왕비와 성의는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군.
- ③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왕비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이겠군.
- ④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왕비의 심정은 애이불비(哀而不悲)라 하겠군.
- ⑤ 성의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모습에서 왕비의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를 볼 수 있군.

34. [B]와 [C]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하기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을 과장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상대를 떠보고 있다.
- ③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 ④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심을 숨기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동정을 유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35. ‘항의’가 ㉠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추리할 때, 그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6. <보기>는 ‘왕비’가 ‘성의’에게 보낸 편지이다. 위 글과 <보기>를 연관지어 독자가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슬프다! 어미를 위해 황당한 도사의 말만 듣고 좋은 궁궐을 떠나, 넓은 바다와 끝없는 파도를 헤치며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서천에 가 약을 얻었으니 너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하셨구나. 하지만 너의 소식이 없으니 슬프도다. 내 아들이여! 설마 물고기의 밥이 되었느냐? 어느 지방에 의탁하였느냐? 네 형이 너의 소식을 알아보겠다고 가더니 무슨 이유인지 너는 오지 않고 다만 일영주만 가져 왔으며 형의 말을 들어 보니 네가 간 서천은 불국이라, 네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불도를 위해 출가를 했다고 하는구나. 천만 번 생각해 보아도 네 형의 불측한 행실은 천하에 더 이상 없을지니, 너를 시기하여 행선 도중 불행한 화를 당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네 거처에 나아가 보니 네가 기르던 외기러기가 슬피 울고 있어 사람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구나.

- ① 향의는 자신이 꾸민 음모를 실행에 옮겼다.
- ② 성의가 일영주를 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 ③ 왕비는 향의가 동생을 시기한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 ④ 향의는 왕비에게 성의가 불도에 빠져 출가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 ⑤ 성의는 일영주를 구하려 떠나기 전부터 향의를 신뢰하지 않았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생활에서 한 사람의 경제활동은 다른 사람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데도 이것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삼자에게 영향을 끼치고도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치르지도 않는 것을 ‘외부효과’라 한다. 제삼자에게 끼친 혜택이나 손해가 그 성격상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이는 시장의 밖에 존재하기에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고 시장가격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외부효과에는 앞서 들었던 사례처럼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다. 매일 집 앞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다면,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은 깨끗한 길거리를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다. 새로 생긴 꽃집에서 매일 향기 그윽한 꽃들을 진열해 놓는다면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미치는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라 한다.

그런데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 원리의 작동을 방해한다. 그 이유는 한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시장 또는 가격을 통해 적절하게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가용 운전자가 매연을 배출하지만 도로 주변의 행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공장 관계자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꽃향기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꽃집 주인에게 이웃 주민들이 보상을 해주지도 않는다. 그렇다 보니 부정적 외부효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고, 긍정적 외부효과는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이와 같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금지, 격리, 기준 설정, 세금 부과 등의 규제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제한하거나, 환경 오염세 같은 세금을 도입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기업은 생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공해의 양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지원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어 장려한다. 사회에 많은 이익을 주는 조립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7.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대상의 차이점을 들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현상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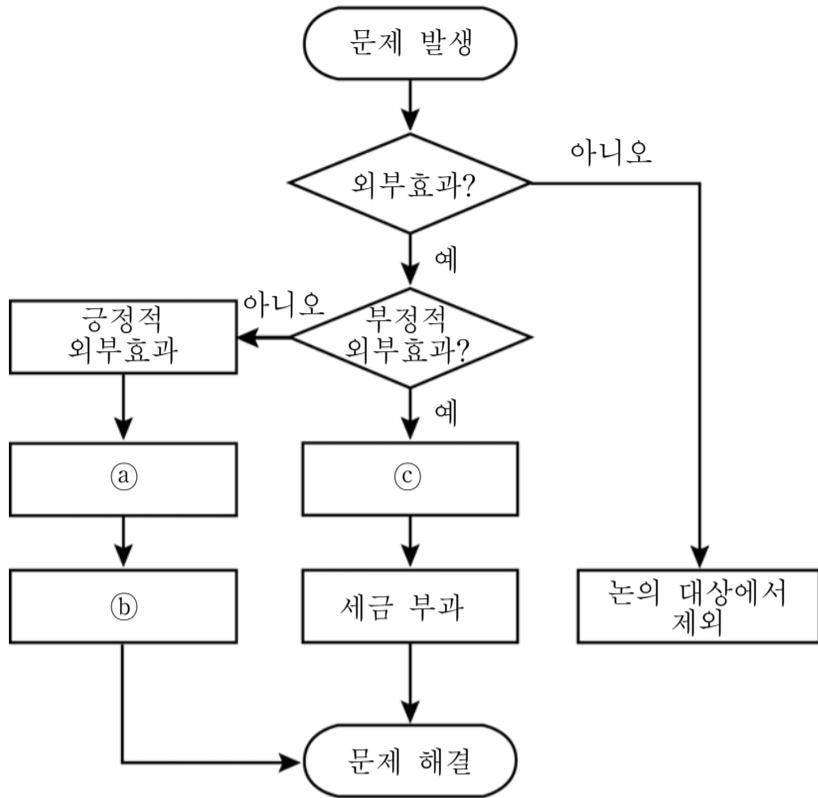
38.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것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은?

—<보 기>—

㉠은 ㄷ불규칙 활용의 예이다. 어간의 끝소리가 ‘ㄷ’인 용언 가운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뀌는 것을 ㄷ불규칙 활용이라 하며, 이 용언을 ‘ㄷ불규칙 용언’이라 한다.

- ① 철수는 금괴를 땅에 묻었다.
- ② 민수는 문을 닫고, 외출을 했다.
- ③ 거실에 놓을 의자 하나를 얻었다.
- ④ 영수는 음악을 듣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 ⑤ 사람들은 우주에 생물체가 살 것이라고 믿고 있다.

39. 위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     |
| ① | 과소 생산 | 보조금   | 과대 생산 |
| ② | 과소 생산 | 기준 설정 | 과대 생산 |
| ③ | 과대 생산 | 격리    | 과소 생산 |
| ④ | 과대 생산 | 기준 설정 | 과소 생산 |
| ⑤ | 과대 생산 | 보조금   | 과소 생산 |

40. <보기>를 읽은 독자가 위 글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주택가 근처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들어섰다. 그러다 보니 버스의 운행이 잦아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주민 대표는 버스 회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해결을 요구하였다. 버스 회사 사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실을 정기적으로 열 것과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 ① 외부효과는 시장 원리의 작동을 지원하는가?
- ② 외부효과는 자발적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 ③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 ④ 외부효과는 정부의 개입 없이 해결이 불가능한가?
- ⑤ 외부효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가?

[41~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줄거리> 함묘진은 불상 제작가로서 명성을 얻은 인물로 동연과 서연이라는 제자를 두고 있다. 불상 제작에 회의를 느껴 작업장을 떠났던 서연이 다시 돌아왔다.

서 연 나, 돌아왔네.  
 동 연 (힐끗 바라보더니) 갈 때는 아무 말도 없이 가더니, 와서는 무슨 염치로 말을 하는가?  
 서 연 미안하네. 그저 마음 답답해서 바람 좀 쏘이고 왔지.  
 동 연 그저 바람 쏘이고 왔다, 참 한가한 사람이군!  
 서 연 그런데 자넨 뭘 그리 열심히 하는가?  
 동 연 난 몹시 바쁘네! 십일면관세음보살상을 주문받았어. 이번엔 굉장해. 황금과 구리를 섞어 만드는 금동상일세.  
 서 연 축하하네, 동연이.  
 동 연 지난번 내가 만든 미륵보살반가상이 팔렸거든. 절 한 채 값 받았네. 보현사 주지스님이 한눈에 보고 반하셨지. 그러더니만 내 실력을 인정하시고는 관세음보살상을 의뢰하셨어. 두고 보게. 이 일만 잘 되면 난 일약 유명해질 거야.  
 서 연 어렵하겠는가. 자넨 반드시 유명해질걸세.  
 동 연 ㉠잘 듣게. 사부님께선 나에게 모든 걸 넘겨 주실 생각이셔. 자네와 나, 둘을 놓고 저울질하시다가 결국은 나를 후계자로 택하셨지. 그렇다고 원망은 말아. 우리 둘 다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회를 잡았고, 자넨 태만하여 그 기회를 놓쳤다고.  
 서 연 내가 다녀오는 운장산(雲長山)은 참 좋더군.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곧게 뻗은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뤘어. 그 숲속의 호젓한 길로 걸어 올라가는 맛은 가히 일품이었네. ㉡동연이, 어떨까? 나와 함께 가보지 않을 텐가? 이런 답답한 작업장에서 부처님 화상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 마음이 웅졸해져. 운장산에 올라서면 사방팔방이 툭 터졌네. 한눈에 지리산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보이고, 저 멀리 아스라히 무등산, 그리고 두 귀가 봉긋한 마이산도 보여. 그런 다음 계곡을 따라 산을 내려오면…… ㉢비석바위, 다불(多佛)바위, 보살암 등 십 리에 걸쳐 온갖 바윗돌이 늘어서 있는데, 사람이 만든 불상보다 진짜 부처님을 닮았네.

(중략)

(함묘진,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들어온다. 그는 서연을 보자 반가워한다.)

함묘진 ㉢서연이가 왔구나! 서연이가 왔어!  
 서 연 네, 사부님.  
 함묘진 그동안 난 허반신이 잘 안 움직여. 이렇게 지팡이 신세를 졌지. 그런데, 도대체 너는 어딜 갔었더냐?  
 서 연 전라도의 운장산에 갔었습니다.  
 함묘진 운장산이라…… 전라도는 명산대찰이 많은 곳이지. 난 네가 부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하다가 나갔기에 머리 깎고 중 되는 줄 알았다.  
 서 연 저도 그럴까 했었습니다만…….  
 함묘진 그랬는데?  
 서 연 저에겐 승려의 자질이 없습니다. 더구나 까다로운 계율을 지키지도 못할 테고…….  
 동 연 알긴 아는군!  
 함묘진 그럼 그동안 뭘 했었느냐?  
 동 연 서연은 운장산 계곡에서 바윗돌만 봤다고 합니다.

**함묘진** 바윗돌만 봤다니?  
**동 연** 불상들은 헛것이고 바윗돌이 부처님이라니, 그게 어찌 제정신으로 할 소립니까?  
**함묘진** 서연아, 넌 동연의 좋은 소식 들었겠지?  
**서 연** 들었습니다.  
**함묘진** 아주 굉장한 불상을 주문받았어. 그런데 난 너한테도 좋은 소식 있길 바란다.  
**서 연** ㉠하지만 저는…… 불상 제작은 포기했습니다…….  
**함묘진** 형태는 포기해도 마음은 포기하지 말아라. 요즘 내 생각이 달라진다. 부처의 형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만이 부처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여겼더니, 그게 아니야.  
**동 연**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함묘진** 무슨 말이지는…… 부처의 형태에 치중하면 도리어 부처의 본성과는 멀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지.  
**동 연** ㉡평소의 사부님 말씀 같지 않으십니다.  
**함묘진** 너는 분명히,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 앞으로 네가 만든 불상들은 내가 만든 불상보다 더 칭찬을 받을 거다. 그러나 동연아, 네가 더 이름을 얻고 돈은 더 벌겠지만…… 자만하지 말아라. 부처의 모습을 잘 만든다고 해서, 부처의 마음마저 잘 만드는 건 아니다. 내 말을 명심해 두어라.  
 - 이강백, 「느낌, 극락(極樂)같은」 -

4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 ㄱ. 지시문을 최소화하여 대사에 초점을 맞춘다.
- ㄴ. 주고 받는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 ㄷ. 다양한 소도구들을 이용하여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 ㄹ. 독백이나 방백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2. 위 글을 무대에 올린다고 할 때, ㉠~㉡에서 연출가가 배우에게 조언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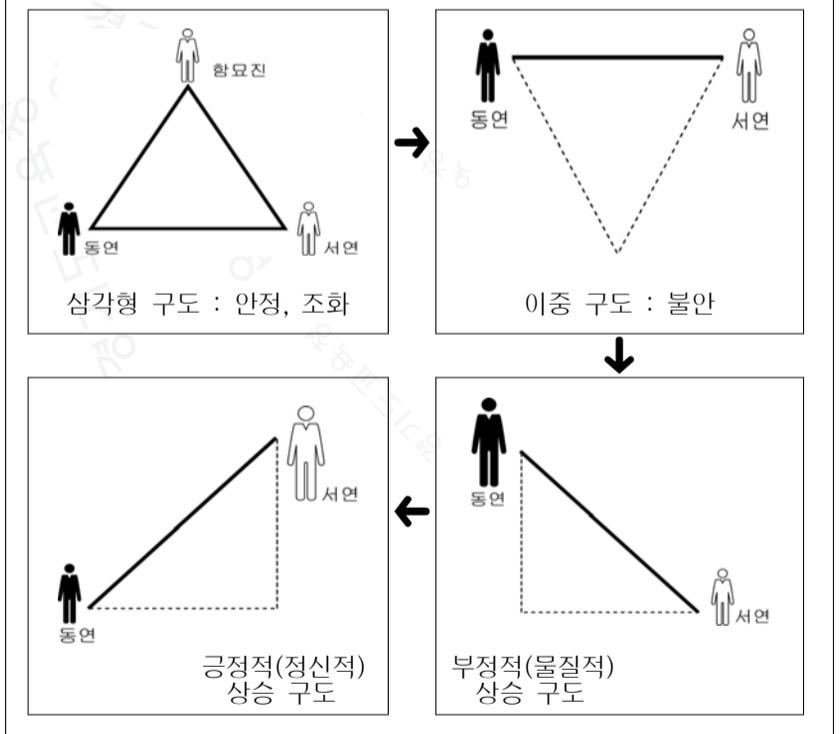
- ① ㉠ :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표현하세요.
- ② ㉠ : 진심을 담아서 동연에게 권유하는 어조로 말하세요.
- ③ ㉡ : 밝은 표정으로 서연을 맞이하도록 하세요.
- ④ ㉡ :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잘 드러내세요.
- ⑤ ㉡ : 함묘진의 말에 놀라는 표정과 말투로 연기하세요.

43.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만 부처의 마음이 담겨 있다네.
- ② 사람과 닮은 불상이 진짜 부처님일 수 있네.
- ③ 완벽한 불상의 형태에 부처의 마음이 깃든다네.
- ④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진짜 부처님이네.
- ⑤ 자네는 부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불상을 만들고 있네.

44. 다음을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 극 전체는 아래 순서에 의해 전개된다. 함묘진, 동연, 서연이 만들어 내는 극적 구도의 변화를 통해 주제 의식을 암시하고 있다.



- ① 함묘진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로 작품이 시작되었겠군.
- ② 서연이 내적 갈등으로 인해 불상 제작을 포기하면서 불안한 이중 구도가 시작되는군.
- ③ 불상 제작에 대한 서연과 동연의 서로 다른 생각이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면서 불안한 이중 구도를 보이는군.
- ④ 함묘진의 후계자가 된 동연은 세속적 욕망을 달성함으로써 부정적 상승 구도를 취하게 되는군.
- ⑤ 평소와 다른 함묘진의 언행은 서연 중심의 긍정적 상승 구도로 나아갈 것임을 암시하는군.

[45~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자·맹자·순자로 대표되는 고대 유가(儒家)들은 사회의 개선과 현실의 구원을 고민하면서 도덕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안’을 확장시켜 공동체와 일체를 이루는 사회였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이상사회에 대한 꿈은 현실의 욕망에 부딪히면서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을 배척하고 약탈하는 소인들의 창궐로 ‘관계의 안’은 축소·고립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고대 유가들은 사적 이익의 추구라는 개인적 욕망에 대해 해명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고대 유가들은 인간의 욕망을 자연적인 사실로 인정했다. 또 그들은 학문 추구하고 도덕적 삶의 즐거움에 대한 욕망도 실재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 유가들은 자연적·물질적인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도덕적인 욕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사유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고대 유가들이 바라는 도덕 사회, ‘관계의 안’을 확장시키는 삶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부정할 뿐, 정치적·도덕적 업적과 성취에 따르는 이익의 수취와 향유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삶은 부정하였지만, 백성 모두의 이익을 위한 군주의 행동은 지지하였다. ‘이익’류 욕망이 개인에게 매몰되는 욕망인지, 공동체를 향해 열린 욕망인지를 물었던 것이다.

맹자는 “욕망을 줄여라!”라는 과욕(寡欲)과 “욕망을 없애자!”라는 거욕(去欲)을 주창했다. 맹자가 생각하건대 마음[心]은 사단(四端)과 같은 도덕적 경향성과 식욕이나 성욕 같은 물질적 욕망이 함께 발생하는 터전이다. 물질적 욕망은 자연적이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반면, 도덕적 경향성은 추진력이 미약하여 그것의 현실화에는 의지라는 내적 강제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맹자는 물질적 욕망 줄이기와 도덕적 경향성 키우기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도덕적 경향성과 물질적 욕망 사이의 자연적 세력을 전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물질적 욕망을 도덕적 경향성의 세력 아래로 순치(馴致)\*시키고자 기도했다.

순자는 “욕망을 유도하자!”라는 도욕(道欲) 또는 “욕망을 길러주자!”라는 양욕(養欲)을 주창했다. 순자는 욕망의 생성은 자연적 사실이므로 욕망 그 자체를 없애거나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욕망의 ‘있음’과 ‘많음’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욕망의 생성과 현실화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욕망의 생성은 자연적 사실로써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것의 현실화는 마음의 금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욕구에 지배되지 않고, 반드시 마음의 지배 아래 ‘하고 싶음’을 유도하거나 절제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한다고 순자는 주장했다.

고대 유가들은 ㉠‘이익’류 욕망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해명함으로써, ‘관계의 안’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이를 팽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욕은 인간의 관계망을 소실하도록 만들어 사람을 물리적 개체로 고립시킨다. 이때 사람은 물질적 욕망의 자연적이며 강력한 역량을 우회,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이 아니라 수반(隨伴)\*으로 보거나, 혼재 속의 순치로 보거나, 제약 속의 충족으로 봄으로써 ‘관계의 안’을 팽창시켜 개인과 공동체가 일체화의 길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된다.

\* 순치(馴致) : 목적인 상태로 차차 이르게 함

\* 수반(隨伴) : 어떤 일과 더불어 생김

4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가들의 욕망론에 담긴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 ② 유가들의 욕망론이 지닌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오늘날의 관점에서 유가들의 욕망론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유가들의 이론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연결지어 조명하고 있다.
- ⑤ 유가들의 이론이 당시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46. ㉠에 대한 유가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순자는 욕망의 생성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여겼다.
- ② 맹자는 도덕의 배양으로 순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 ③ 공자는 도덕적 행위와 치국(治國)에 수반되는 것은 인정하였다.
- ④ 공자, 맹자, 순자 모두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여겼다.
- ⑤ 공자, 맹자, 순자 모두 욕망이 인간의 관계를 축소시킬 것을 염려했다.

47. 위 글로 미루어 <보기>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양혜왕** : 선생께서는 장차 이 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를 가저오셨겠지요?

**맹자** : 왕께서는 어찌 이(利)를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에 이익이 될까?’ 하는 것만을 생각하신다면,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내 영지에 이익이 될까?’ 하는 것만을 생각할 것이고, 서민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는 것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 ① 그렇게 되면 인의에서 점점 멀어져 소인들을 창궐하게 만들 것입니다.
- ②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닌 ‘관계의 안’은 점차 확장될 것입니다.
- ③ 왕께서 앞장서 이(利)를 추구한다면 그 속성상 모두 왕을 따라 서로 다투어 이(利)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 ④ 이(利)는 쉽지만 인의는 어렵습니다. 왕께서는 의지라는 내적 강제력을 가지고 도덕적 경향성을 키워야 합니다.
- ⑤ 물론 이(利)와 인의는 모두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利)는 인의 아래로 순치시켜야 합니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